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한 인 영(이화여자대학교), 박 명 숙(상지대학교), 유 서 구(송실대학교)

I.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 태도, 가치에 따라서 그 사회의 성과 관련된 제도나 법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는 성과 관련된 구성원의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사회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성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왔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나 보호체계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는 전통적인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성매매, 성폭력, 성학대, 청소년 성범죄, 인터넷을 통한 성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은경, 2001; 신혜섭·양혜원, 2005; 이춘화·조아미, 2005). 성폭력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성문제에 대해 기존의 인식과 전통적인 제도를 통해서 접근하거나 해결점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과 제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한국사회의 과제라고 하겠다.

성폭력의 문제는 힘을 가진 자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대상에게 가하는 심각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매우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더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아동 및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권희경·장재홍, 2003; 변황혜정, 2000; 신혜섭·양혜원, 2005; 정명희, 2004; Elman, 2001), 성폭력으로부터 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중요한 관심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성폭력의 문제는 문화적 요인과 젠더(gender)요인이 결합되면서 사회 복지영역에서는 연구나 실천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그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체계 및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II. 성폭력과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이해

1. 성폭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폭력의 발생을 사회 및 문화적 환경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데, 폭력에 대한 문화적 수용, 가부장적 또는 여권론적 관점, 폭력에 대한 하위문화, 구조적 스트레스 등에서의 접근이 이러한 거시적 관점에서 폭력을 설명하고 있다(Barnett et al., 1997; Jasinski, 2001; Swisher & Wekesser, 1994). 성폭력과 관련하여 이러한 접근의 공통점은 남성과 비교하여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 및 불평등이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성폭력은 ‘합법적’인 폭력, 즉, 목적달성을 위한 한 타당한 수단으로서 간주되며, 이러한 폭력의 행사는 이를 암묵적, 명시적으로 용인하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지지되며, 따라서, 사실상 이런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는 성폭력이나 배우자 폭력이 ‘폭력’자체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종인, 2006). 즉,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단순히 생물학적 또는 개인적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되고 분석될 때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개입방안 및 예방책을 모색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폭력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문화, 가치, 태도 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한국사회의 경우 전통적으로 서구사회와는 매우 다른 성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성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성과 관련된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으로 피해자 책임강조, 전통적인 성 역할, 사회적 개입에 대한 저항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3. 선행연구의 검토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Reavey와 그의 동료(2006)들은 성 학대를 경험한 아시안 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직면하는 딜레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성 학대와 관련된 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성 학대를 경험한 아시안 여성들의 경우 성학대 경험 자체에 대한 인식보다는 이를 문화적 요인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Lee와 그의 동료(2005)들도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강간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살피기 위해 미국 내 아시안과 백인 남녀 대학생들을 조사하였는데, 연구의 결과는 응답자의 인종 및 성별에 따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인지 및 태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인용된 연구의 결과들은 성 학대를 경험한 아시안 여성들에게 이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제공되는 개입 및 서비스는 오히려 정신 질환이나 낙인과 같은 다른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성과 관련된 행위를 폭력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에 소극적인 한국적 문화에서 성폭력과 문화적 태도에 대한 국내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변화순 외(2000)는 전국의 성인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아내구타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아내구타에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박명숙과 유서구(2003)는 아동 성 학대에 대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아동 성 학대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졌다. 또한 박명숙(2004)은 한국의 문화적 양육방식 중에서 남아선호사상과 관련하여 아동의 성기노출이나 성기접촉과 관련된 양육과정상의 행동들을 아동의 성 학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남녀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들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은 양육과정상의 자신의 주관적 또는 객관적 경험에 기초하여 이를 “안전한 관계”로 해석하고 있는 경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에 대한 태도 및 의식은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중심의 한국적

문화는 성폭력을 개인적인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적 태도는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심각한 문화적 특성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겠다.

III. 연구방법

성학대/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성문화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 3월부터 2개월간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2,037명을 대상으로 관련변인과 척도가 포함된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전국 시도별 2005년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근거로 지역, 성, 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추출을 사용하여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구성하였고, 실제조사는 사회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성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3.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력이 통제된 후에도 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전통적인 한국적 성문화에 대한 수용정도)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기술통계, 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전체의 51.2%로서 여자(48.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65.1%로 가장 많고, 미혼이 32.5%이며, 나머지 유형들이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체의 3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36%로 나타났다. 거

주지역의 경우, 서울(21.8%)과 경기지역(22.4%)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전체의 약 3/4가량이 건강하거나 매우 건강한 것을 보고하였으며,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76.7%의 응답자가 중이상의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2.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가 실시되었는데 성별, 결혼유무, 학력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응답자(평균=39.6,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묻는 11개 척도문항의 합점으로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73$)가 남성(평균=36.8)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 더 바람직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혼인 응답자들과 고학력 응답자들이 결혼한 응답자나 저학력 응답자에 비해 성폭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바람직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경제적 수준의 차이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경우, 경제적 수준이 중이상인 집단(평균=38.3)이 중미만의 집단(평균=37.8)보다는 좀 더 바람직한 인식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의 유의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 사회문화적 인식의 영향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에 이런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된 후 사회문화적인 요인(전통적인 한국적 성문화의 수용 정도를 9개 척도문항의 합점으로 평가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인 한국적 성문화를 견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69$)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로, 앞서 언급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후에도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 square change=.136, $p<.001$). 이는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를 더 수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성폭력에 대해 더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V. 결 론

성폭력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태도 및 인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Collings, 1997), 성폭력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폭력에 대한 개입계획이나 실천은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환경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배제한 채 계획될 수 없고, 문제의 발생과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의 사회복지현장은 오래 전부터 이미 성폭력 발생과 전개과정에 대한 활발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제도나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이런 문제들에 논의가 활발해지고 사회적 관심과 자원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영향은 물론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한국의 성문화가 성폭력의 문제에 있어 피해자 책임을 강조하거나, 사회적 개입 방해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인식은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거나 조장할 수도 있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화적 특성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뤄지지 못했던 Census-based Sampling에 기초하여 전국적인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이에 대한 개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지식 기반에 기여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성폭력에 대한 서비스와 제도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